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민선 6기 시정구호 확정 교체·정비 작업 최소화

광주시는 지난 31일 “민선 6기 시정구호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시정구호는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누리고,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성숙하는 광주가 지향해야 할 시민적 가치와 더 좋은 광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성,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존중하면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자는 운정현 시장의 시정철학 등이 반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시민중심의 시정구호를 위해 그동안 사용된 시정구호인 ‘더불어 사는 광주’와 병행 표기할 시정구호 선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972건을 접수한 뒤 자체 심사 2회, 시민선호도 조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구호 ‘더불어 행복

한 시민’은 동일 문구로 총 5명이 응모했으나 공모대상 동일한 작품 접수시 가장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김보씨가 최종 제안자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시정구호 교체·정비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구호 표기 현판 설치장소를 2곳(시청 행정동 정면, 김대중컨벤션센터)으로 최소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직속기관·연구소 등의 모든 현판을 최소비용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승강장, 표지판, 안내판 등 각종 계시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시정구호 표기를 제한하고, 민선 5기 시정구호 문구 삭제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정비 기간에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김기숙 광주시 기획담당관은 “시정구호가 4년 주기로 교체되면서 예산난 낭비하고 있다는 윤 시장의 지적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교체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 ‘고용우수기업’ 48곳 선정 ... 인센티브 제공

광주시 선정 고용 우수기업

(주)인정보기술, (주)지오메디칼, (주)지오티, (주)더프라이드, 한국제다, 미크론택, 에이케이이노텍(주), (주)가람이앤씨, 창성정밀(주), (주)미봉하이텍, (주)현성테크노, 대영전자(주)광주지점, (주)지용금속, 에프앤엔(주), (주)티지솔루션, (주)아스트로, (주)한진디엔비, (주)수인산업, YBG테크, (주)신성테크, (주)프리모, (주)대웅에스앤티, (주)가투디지털그룹, (주)하남열처리, (주)10억홈피, (주)엔유비즈, 화신산업(주), (주)신영인더스, (주)이울전력, 아이앤테크(주), (주)왕성테크, (주)명빈, (주)한샘종합식품, (주)아이에스-텍, 한진실업(주), (주)머신하이텍, (주)머신나노텍, (유)은진하이테크, (주)비엘시스템, (주)대원글로벌, (주)이노셈코리아, 평화전자(주), 엔텍스(주), (주)광주복충유리, 코아정밀(주), 보스텍(주), 지.티.에스(주), (주)가민정보시스템

민선 6기 좋은 일자리 1만개 육성을 약속한 광주시가 신규 고용창출 실적과 근로환경이 우수한 광주 소재 기업 48개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최근 고용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신규 고용창출 실적과 근로환경 등이 우수한 48개 기업을 2014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인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의지와 지역사회 전반으로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 19개 기업을 인증한 데 이어 2011년 20개 기업, 2012년 51개 기업, 2013년 32개 기업 등 그동안 170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대상은 2년 이상 광주에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 핵심 전략산업 분야 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며, 총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총업원 50인 미만 소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신보재단 보증료 할인 등

기업은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과 정상 거래가 제한된 기업, 임금체납과 노사분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공고일 현재 국제 및 지방세 체납기업, 인증 신청 1개월 이내에 정리하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근로자 파견 및 용역 업체, 계절·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최근 2년간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뚫고 올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8개 기업은 최근 1년간 총 463명의 신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한 기업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화신산업(주), (주)더프라이드로 각각 44명과 34명을 추가 고용했다.

2010년 이후 한차례 인증받은 (주)대웅에스앤티, 에프앤엔(주), 아이앤테크(주) 등 15개 업체도 올해 추가 고용을 해 재인증 받았다.

시는 오는 8월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할 계획이다.

또 인증기간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5억원) 및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할인 ▲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전자무역 프린터 지원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최대 16종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박동희 광주시 일자리창출 과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광주시민의 행복한 삶과도 직결된다”면서 “행정 수칙상에 나타나는 일자리를 아닌 시민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음식물쓰레기 ‘유전’ 터졌다

광주환경공단, 기름 분리 성공...年 수익 1억 기대

음식물쓰레기에서 짜낸 기름을 판매해 연간 1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돼 화제다. 폐식용유와 성분이 같은 이 기름은 경유 보일러 보조연료와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박화강)은 지난 31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에서 기름만 따로 분리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연간 1억원의 기름판매 수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광주환경공단 유역사업소측에 따르면 광주 제2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하루 30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1000kg 정도의 동식물성 기름을 짜내고 있다. 공단은 이를 전국 공개매각 입찰 방식으로 kg당 37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연평균 1억원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공단은 올 초부터 음식물 폐수 안에



있는 기름을 짜내는 기술개발에 나서 음식물 쓰레기내 함유 기름 중 25%까지 빼내는 데 성공했으며, 내년까지 70% 추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은 70% 추출에 성공하면 연간 판매수익만 3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을 통해 전국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에 섞여 있는 기름성분이 처리 설비에 눌러 붙거나 배관을 막기까지 했는데 이런 배관 막힘 현상도 없게 됐다”면서 “수익도 올리고, 설비의 고장도 막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모든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을 사료원료로 팔아 연간 5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빛고을건강타운 요가체험

최고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요가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노인 회원들이 다양한 요가자세를 배우고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제공>

못난이 과일 발효식초 만들기 교육생 모집

시 농업기술센터 13일까지

교육은 ▲채소(양파·토마토)를 활용한 천연식초 교육 ▲과일(복숭아·포도)를 활용한 천연식초 교육 ▲현장견학 등으로 운영되며, 각 교육 과정별로 1인당 1회씩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모집인원은 실습교육 1회당 30명이며 현장견학은 40명이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13일까지(토·일 제외)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또는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agricity.net)를 통해 선착순 접수·모집한다.

다만 현장견학 대상자는 실습교육 1회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이나 FAX,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보건·환경·동물 위생 2015년 연구과제 공모

시보건환경연구원 14일까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에 추진할 자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제안분야는 보건, 환경, 동물위생이다. 참여 대상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단체, 관공서 등이다. 제안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vi.gwangju.go.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ass1201@korea.kr)이나 팩스 (062-613-7519)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선진적인 연구 문화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해마다 분야별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직도서관 임시 휴관

11~22일... 도서반납 가능

광주시립사직도서관은 지난 31일 “노후된 창고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임시 휴관 기간에는 도서관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없지만, 이미 대출한 도서는 반납할 수 있다. 문의 062-613-7771~7787.

/*채희종기자 chae@

어부사시사
전복요리 전문점

여름철 별미
황칠나무로 우려낸
전복삼계탕 15,000원

점심 특선 메뉴

- 전복 비빔밥
- 전복 뚝배기 ₩8,000원
- 전복 갈치찜
- 전복 갈비찜
- 전복 생우럭지리

목포 용해동사무소 뒷편 ☎ (061) 278-4111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백함촌

오늘의 물 좋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함세트 (탕+우렁+구이)	50,000원
백함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삼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앞 담양골 건너편)
T (061) 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 283-2322
F (061) 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검찰청 정문앞